

## HEADLINE NEWS

### 건축폐자재를 재이용하는 리사이클 사업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1년 12월 말 都營주택의 재건축시에 발생하는 폐자재를 재이용하는 리사이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都는 우선, 신주쿠(新宿) 六丁目단지를 모델지구로 지정하고, 2002년 3월부터 건물 해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건물 해체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파쇄(破碎)하여 현장에서 재이용하고, 목재는 칩(Chip)으로 가공해 마루 등의 재료로 사용하는 등 가능한 한 재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플라스틱류나 종이, 천, 금속 등이 혼합된 폐기물도 분류해 적극적으로 자원화·감량화 하고,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진흙도 가능한 한 현장에서 재이용할 계획이다. 都는 이러한 모델 사업을 통해 적정한 비용부담률을 산출하고, 공사추진 노하우를 축적하며,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제안도 받아 건축폐자재 리사이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택 건설용 가이드북도 만들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2001. 12. 27)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건물에너지 절약 위해 인증·시상제도 도입 (브뤼셀 / 싱가포르)
- ② 가로시설물 설치비용 마련 위해 민간업체의 광고물 부착 허용 (로스앤젤레스)

### 도시환경

- ③ 도시 소음측정 및 감소대책 추진 (프랑크푸르트)

### 도시교통

- ④ 도심과 항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추진 (함부르크)
- ⑤ 등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해 야광배지 제작·무료 배포 (독일: 브레멘시)
- ⑥ 캐릭터를 활용한 「지하철문화 Upgrade」 캠페인 전개 (런던)
- ⑦ 대규모 교통센서스를 토대로 향후 20년을 겨냥한 교통 전략 수립 (동경)

### 사회복지

- ⑧ 청소년 범죄예방 위한 스포츠 여가프로그램 실시 (베를린)
- ⑨ 장애인용 도시 안내책자 발간·무료 배포 (독일: 마르부르크시)

### 행재정

- ⑩ 위생상태불량 음식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 (로스앤젤레스)
- ⑪ 상품구매 할인카드 도입해 지역상가 활성화 추진 (동경: 스키나미區)
- ⑫ 시립박물관 소장품 시민에게 무료 공개 (파리)
- ⑬ 24시간 원스톱 민원서비스 핫라인 「1823」 개통 (홍콩)

### ① 건물에너지 절약 위해 인증·시상제도 도입 (브뤼셀 / 싱가포르)

유럽의 각 도시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일반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절약을 주제로 벨기에 브뤼셀市에서 개최된 유럽장관회의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개축 건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검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인증(認證) 자격을 부여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제도는 한 건물에서 사용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규정하고, 냉장고 등 건물의 냉난방장치 및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기술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데 취지가 있다. (본지 제12호 「공공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 제14호 「신축주택 ‘에너지효율’ 표기 의무화」 기사 참조)

한편, 싱가포르는 ‘건물에너지절약기본계획’의 일환으로, 「EEBA(Energy Efficient Building Award)」라는 시상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이 상(賞)은 에어컨을 사용하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건물주인, 건축가, 에너지 컨설턴트, 에너지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3개 부문별로 매년 수여된다. 신규건물 부문賞은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절약을 주된 설계요소로 한 사람에게, 개보수 부문賞은 기존 건물을 개보수할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특별기술 부문賞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한 사람에게 각각 수여된다. 수상자 선정 기준은 에어컨 및 조명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 건물외벽디자인 상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 이용률, 건물자동화시스템 운용 여부, 에너지 관리 및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20% 이상의 에너지 절약률(개보수 부문) 등이다.

(WESER KURIER, 2001. 12. 5) (www.bca.gov.sg)

## 2] 가로시설물 설치비용 마련 위해 민간업체의 광고물 부착 허용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의회는 가로시설물 내의 광고를 허가해 주는 대신, 향후 20년 동안 150개의 공중화장실과 3,200개의 가로시설물을 공급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민간기업인 Viacom Decaux LLC사(社)와 최근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비아콤社는 향후 7년 동안 150개의 공중화장실을 광고판 없이 설치하고, 향후 20년 동안 버스정류장, 관광안내소 등 3,200개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해 주되, 가로시설물에 비아콤社가 원하는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일부 市의원들이 거리 광고판의 범람을 우려해 계약을 반대했지만, 다수의 市의원들은 관광객과 홈리스(Homeless)를 위해 새로운 스타일의 가로시설물과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가로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은 적어도 매년 200만 달러씩 20년 동안 약 1억 5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Los Angeles Times, 2001. 12. 15)

## 3] 도시 소음측정 및 감소대책 추진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 환경부는 교통량 증가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소음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최근 도시 소음측정 및 감소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소음감소계획은 고속도로의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지방도로의 소음감소시설이 잘 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계획에 따라 市는 소음이 심한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 그리고 터널에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될 신도시지역의 건축계획에도 소음방지대책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소음이 심한 북쪽 지역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Frankfurter Rundschau, 2001. 12. 14)

### 4 도시와 항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추진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市 건설교통부는 현재 도심과 항구를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함부르크市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 지하철, 지상 고속전철이 있다. 도입을 검토중인 슈베베반(Schwebebahn)은 독일 중부의 부퍼탈(Wuppertal)시에서 약 1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지금도 부퍼탈市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사진 참조). 부퍼탈市에서 운행중인 슈베베반은 선로에 매단 현수식(懸垂式)으로서, 지상높이는 12m, 최고속도는 시속 40km, 일반운행속도는 시속 27km 정도 되며, 하루 이용객은 약 8만명 정도 된다.

2012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중인 함부르크市는 교통수단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최지 선정 시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항구와 시내를 잇는 교통수단으로 슈베베반을 검토하게 되었다. 市는 현재 슈베베반의 지상 높이는 60m, 항구와 시내를 잇는 구간 길이는 700m를 계획하고 있다.



(DIE WELT, 2001. 12. 19)

### 5] 등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해 야광배지 제작·무료 배포 (독일: 브레멘市)

독일 브레멘(Bremen)시 경찰당국은 등교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어남에 따라, 2001년 12월 학부모들과 함께 시내 중심가에서 어린이의 가슴에 달 수 있는 야광배지(Blinkies)를 무료로 배포했다(사진 참조). 브레멘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이 대부분 오전 8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날이 채 밝기 전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보로 등교하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띠와 자동차 불빛에 반응하는 플라스틱이 부착된 가방을 메고 등교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정면에서 어린이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브레멘 재활센터 소속 학부모회에서는 市경찰과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슴에 달 수 있는 야광배지를 제작, 배포하게 되었다. 이 야광배지는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어두울 때 버튼을 눌러 빛을 낼 수 있다. 이 배지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등의 재질을 이용해 제작되며, 둥근 배지 형태뿐만 아니라 인형 모양으로도 제작되어 액세서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당국은,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 되도록 밝은 색의 옷을 입히기를 학부모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DIE WELT, 2001. 1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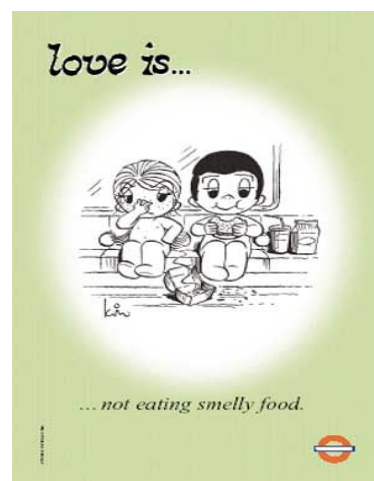
### 6 캐릭터를 활용한 「지하철 문화 Upgrade」 캠페인

#### 인 전개 (런던)

영국 런던市는 현재 'Love is...'라는 캐릭터를 활용해 지하철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승객들이 좀더 타인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하철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지하철 내에 캐릭터를 부착해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의 내용은 하차한 다음 승차하기(그림 1), 냄새나는 음식물 먹지 않기(그림 2),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그림 3)이다. (www.thetub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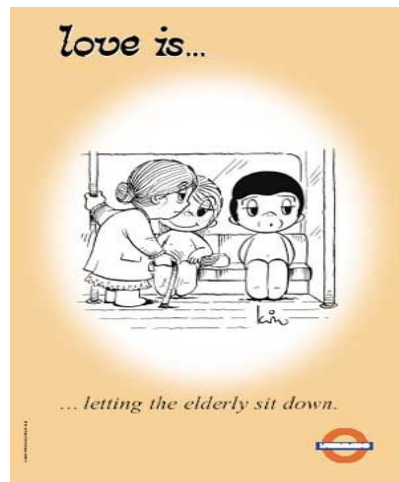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그림 3>



### 7] 대규모 교통센서스를 토대로 향후 20년을 겨냥한 교통전략 수립 (동경)

일본 東京都는 東京 대도시권 주민 88만명이 참여한 제4회 동경권 교통센서스를 토대로 향후 20년을 목표로 한 「東京도시권 종합교통체계 기본방향」을 수립해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도시골격을 이루는 교통시설 정비와 함께 교통시설이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것을 양대 전략으로 하고, 분산형 도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향후 고령인구가 25%를 상회하고, 고령취업인구가 13%대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적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 가치관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자가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교통의 다양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 계획은 東京都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교통의 모빌리티(이동성)를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제시했다. 이 교통전략의 특징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과학적인 평가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www.ijnet.or.jp/tokyopt) (日本 交通工學, 제36권 제4호, 2001년)

### 8] 청소년 범죠평방 위한 스포츠.여가프로그램 실시 (베를린)

독일 베를린市 행정관리부는 현재 市경찰 및 청소년체육협회와 함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복권판매업체가 후원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 스포츠클럽·여가모임 후원, 청소년 직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市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포츠 프로그램 외에 댄스, 사진촬영, 비디오작품 제작 등 창조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www.berlin.de/home/Land/SenInn/aktuell/indexkic](http://www.berlin.de/home/Land/SenInn/aktuell/indexkic))

### 9 장애인용 도시 안내책자 발간·무료 배포 (독일: 마르부르크市)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시에 있는 마르부르크 대학은 독일 전체에서도 장애인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연유로 이 대학에는 다른 대학보다 장애인학생이 많으며, 장애인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이 대학 지리학부에서는 2년 전부터 장애인을 위한 도시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그 동안 마르부르크 시내의 건물과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도 등을 조사했는데,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용 도시 가이드북을 市의 지원을 받아 발간했다. (본지 제22호 「장애인·관광객·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지도 제작」 기사 참조)

이 가이드북은 장애인이 출입하기 불편하거나 위험한 지역,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장애인용 주차장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市복지부는 현재 이 책자를 장애인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인터넷에도 올려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www.marburg.de](http://www.marburg.de))

### 10 위생상태불량 음식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 (로스앤젤레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市 외곽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 보건과는 현재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



빵집 등에 대해 위생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건과는 매달 카운티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조리과정, 종업원의 위생상태, 하수처리시설의 적합성, 조리기구 및 주방·식품보관시설·화장실의 청결상태 등을 조사해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식점은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os Angeles Times, 2001. 12. 25)

### ④ 상품구매 할인카드 도입해 지역상가 활성화 추진 (동경: 스기나미 區)

일본 東京都 스기나미(杉並)구 지역상가는 중앙정부의 경제산업성과 東京都, 스기나미 區의 지원을 받아 2002년 봄부터 區內에서만 광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C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기나미(杉並)구내 상가는 IC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포인트제도를 통한 할인혜택을 주는 동시에, 카드발급을 통해 축적한 고객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이용해 대(對)고객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대형할인점에 대항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區는 區 소재 상점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개 상점을 목표로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일본전역에서 최대 규모의 IC카드망을 구축하게 된다. IC카드를 도입한 상점들은 2002년 초에 사업운영조직인 ‘스기나미 카드연합회’를 설립해 오는 3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들 상점들은 고객이 카드로 100엔치의 상품을 살 때마다 1엔씩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함으로써 쇼핑객을 區 지역내로 끌어들이기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2001. 12. 18)

### ④ 시립박물관 소장품 시민에게 무료 공개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문화 및 예술공간에 대한 접근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2001년 12월 말부터 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상설전을

일반에 무료로 개방했다. 市에 따르면, 예술 및 역사관련 소장품은 중요 문화재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시립박물관은 문화홍보의 일환으로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기획전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www.paris-france.org/Musees/Site\\_federateur/Guide/Tarifs/dp\\_gratuite/accueil\\_dp.htm](http://www.paris-france.org/Musees/Site_federateur/Guide/Tarifs/dp_gratuite/accueil_dp.htm))

### 24시간 원스톱 민원서비스 핫라인 「1823」 개통 (홍콩)

홍콩市는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1823 Citizen's Easy Link」를 최근 개통했다. 기존에 각 부서별로 운영하던 핫라인이 천여 개에 이르러 '핫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다가, 핫라인 연결도 쉽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市는 주요 시정분야를 통합 관장하는 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핫라인 「1823」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숙련된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편의성,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다.

시민들은 통합된 핫라인 「1823」에 24시간 접근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문의 및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는 즉각 답변을 해주거나 해당기관 및 부서에 문의한 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건설, 전기, 환경, 식품위생, 도로, 교통 등 6개 분야의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야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핫라인에 연결하는 방법은 전화(국번 없이 1823), 팩스(2760-1823), 전자메일(tellme@1823.gov.hk), 우편(사서함 1823) 등이다.

([www.info.gov.hk/gia/general/200112/28/1228268.htm](http://www.info.gov.hk/gia/general/200112/28/1228268.htm))